

GRACE 선교소식

프랑스

- 송석배 김은영 송준호 선교사

코로나로 멈췄던 콩고 사랑의 불꽃 2기가 마침내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콩고의 수도 BRAZZAVILLE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에서 S/L인 송준호 목사님과 프랑스팀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 땅은 모로코 장○○ 선교사님의 제자가 고국 콩고에서 개척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또 한 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졌고 또 다른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이고 추수할 일꾼들이 정말 많은 땅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어권 선교를 위해 교회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한기홍 총재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선교지 59개국에 산재한 4,800여 미전도 종족(전 세계 미전도 종족 6,400여 종족의 75%)들과, 나머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의 선교전략 지역에 7,000개 교회를 세워,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그 인구의 미전도 종족에게 전할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

GMI와 함께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가 총재 한기홍 목사님을 필두로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힘찬 도약을 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온 민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변방의 이름 없

이집트

- 김○○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곧 이집트 사역 현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남편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탁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든든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현지 교회 및 사역자들과 온전히 연합하여 이집트 땅에 기도의 처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결과 전이될 가능성이 보이던 것이 없어졌으나 일단 상황이 지난번과 똑같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정기적인 CT, MRI 검사 결과, 천골(꼬리뼈)에 전이된 암은 줄어들고, 암 활동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치가 되어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하길 바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 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치료를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적치료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해주세요.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오병수 선교사
이석증으로 검진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선교사
막내 세아의 왼쪽 다리 성장판 손상으로 척추가 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서 다리길이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살로 앞으로 많이 성장할 시기인데 왼쪽다리와 척추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인도

- 강명철 이지향 선교사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각 주별로 계속해서 인카운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카운터를 통해 각 지역에 영적 부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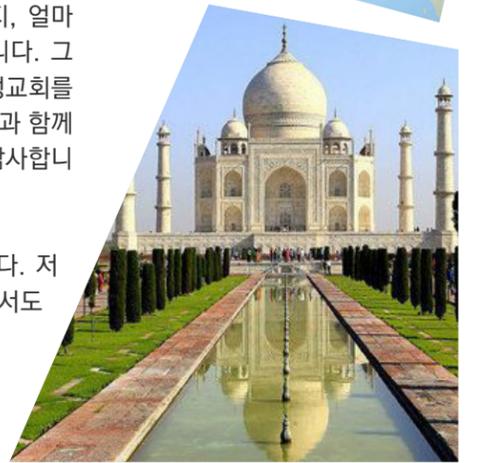


7월, 8월의 EM팀 그리고 10월의 KM팀의 방문으로 특히 5기 졸업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는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정교회를 이끌면서 힘든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 용기를 얻은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세운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교회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핍박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방해받고 계속해서 이사를 해야하며 교회라는 이유로 새로운 교회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아내에게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영육간에 강건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 송두선 양정연 선교사

3개 교회를 통해 14주간 제자양육을 마친 24명의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졸업식 가운데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소나카틀란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9개 교회가 연합하여 100명의 팀 멤버들이 섬기는 가운데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추위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집회를 통해 교회들 사이에 더욱 긴밀한 관계로 맺어졌고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다음 집회때에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브라질

- 한인승 한선희 선교사

이번 AFA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10명도 되지 않던 캔디가 어느 순간 48명이 되었고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도리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전래 없던 브라질의 지독한 폭우속에서도 팀 멤버들의 수고로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설렘 없이 수고한 팀 멤버 모두가 도리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캄보디아

- 안진호 안지연 선교사

캄보디아는 우기철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여서 체감 온도가 100도 전후가 되는 시원한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사고가 난 후에 다친 것들이 모두 건강해졌고 위 출혈도 더이상 없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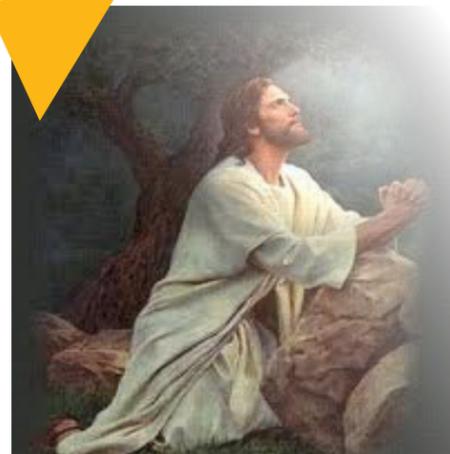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기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집을 잘 구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강건과 언어 잘 배울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왜 주께서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셨나

<1분단상 112-1월호>

- 김대규 장로



지기 때문에 안주할 수가 없다. 항상 어떻게 사용하실까 긴장하고 깨어 있어 순종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주의 말씀이면 행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합리성을 내세워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이 세운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자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아니다. 들림과는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다(마24:40-44).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깨어 있으라”(그레고류오 γρηγορευ: 헬)라는 의미는 온전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방심치 않고, 조심스럽게 신중하며,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이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하며 안주해서는 아니됨을 깨달아야 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단순한 원리만을 생각하고 안일한 믿음으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니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고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진정한 피조물인 토기이라면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쓰여

성경에는 주님의 신부가 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온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지만 등불과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만이 결혼찬치에 참석케 된다는 이야기이다. 준비된 자, 깨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한 자가 들림을 받게 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다. “감람으로 짠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라는 말씀이다. 성스러운 성소 안의 어두움을 깨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등불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감람으로 짠 순결한 기름은 성경을 상징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깨어진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 순수한 신앙은 부단히 세속적인 불순물들을 부딪혀가며 도려내고, 잘라내며, 걸러내어 성결함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일궈낸 삶으로 빛되신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자인 것이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계시록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환란의 때이다. 펜데믹은 물론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난도 모를 환란들을 대치하며 유연하게 이겨나갈 길은 오직 깨어 있어 환경을 뛰어 넘고 지배하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이다. 성령충만한 삶인 것이다.

고로 어떠한 환란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므로 요동치 말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배교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다.

성결과 거룩과 진리 안에서 잠시라도 이탈한다면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와 주의 말씀이 거하여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리 될 때 우리는 “깨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 이는 어떠한 환란들이 온다고 해도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눈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다.

